



제주 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남발 '논란'

한영진 의원, 중복·유사 용역 따른 실효성 지적 도 "수자원 관리체계 미흡... 지금이라도 갖춰야"

제주특별자치도의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집행부를 상대로 물 관련 용역사업의 중복·유사 문제를 집중 질타하면서 '용역 남발' 논란이 일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내

년 예산안(오구)에 편성된 물 관련 연구용역은 9건·36억1572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용역은 ▷제주형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19억원) ▷용천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및 전수조사(1억)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6억) ▷제주도 지하수 수질 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1억5000만원) 등이다.

앞서 도는 2017년 수자원 관리종합계획 보완 수립을, 지난해에는 물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주형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주형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평가, 수자원보전·관리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 정비(안) 마련 등을 진행했다.

특히 한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상수도 및 농업용수의 현황조사와 GIS 통합구축, 취수량, 수요량, 수질현황과 빗물·용천수·하수처리수 등 대체수자원 연계·활용방안과 법 제도 개선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용천수 효율

적 이용방안 마련 및 전수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용역 내용의 차이점과 동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추궁했다.

한 의원은 "공기관 위탁사업의 연구과제를 늘려주기 위한 조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물 관련 용역이) 중복적이고 과다하다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장은 "지금까지 물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허점이 상당부분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용역 등을 추진해 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은지기자 eioh@halla.com

"포털의 지역언론 우대방안 추진 필요"

'자치분권·균형발전 위한 지역언론의 과제' 토론회

인터넷 포털 뉴스 유통 경로 장악으로 초래된 지역 언론의 위기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위기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포털이 지역 언론 우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한국지방신문협회·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는 4일 서울경부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초발제와 함께 포털(네이버)에 의해 소멸해가고 있는 지역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쟁점토론 등이 진행됐다.

류한호 광주대 교수는 '자치분

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에 대한 기초발제에서 지역언론이 ▷거대언론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지역주민들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누릴 기회 제공 ▷지역의제 설정 기능 ▷지역의 정치·경제적 권력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견제 ▷지역의 정치·경제적 주도세력과 지역주민들 사이의 대화와 소통을 위한 통로 ▷행정절차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 교수는 "지역언론은 지역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역언론을 위한 포털의 시장 구분과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미디어에 대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나 보호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우대하는 등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부미현기자

클라우드펀딩 관련

제주서 국내 최대 설명회

12일 제주혁신성장센터서 진행

제주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제주 혁신성장센터 J-CUBE에서 '찾아가는 와디즈 스킴×제주'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테크노파크와 대한민국 대표 클라우드펀딩 업체인 와디즈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투자설명회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업들의 창업 초기 효과적인 투자금 조달과 함께 마케팅 전문가의 컨설팅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클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뜻하며, 와디즈는 국내 1위 온라인 클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사업자다.

이번 설명회는 행사에서는 클라우드 펀딩 과정 전반에 대한 가이드가 제시되고, 제주지역의 사례 분석을 통한 성공 노하우 공유, 스토리 기획 및 홍보에 대한 심화 과정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아울러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와디즈의 멘토링 기회가 주어져, 펀딩 관련 가이드북이 배포된다.

제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창업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클라우드 펀딩을 준비하는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halla.com



인사말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중로구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한-중 고위급 기업인 만남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 지원 감소... "경제활성화 손났다"

강성민 의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빼면 0.9% 줄어" 일부 사업 편중 예산 및 저조한 증액·신규 사업 '도마'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실질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예산이 감소해 제주도정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은 4일 속개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강 의원에 따르면 내년 제주도 일자리경제총상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예산안 분석 결과 지원 예산

안은 총 169억2552만원으로 올해 추경 예산 대비 5.4%(8억6002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예산 15억원 중 올해 증가액 10억원을 제외하면 159억2552만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실제 0.9%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또 강 의원은 관련 예산이 일부 사업에 집중되고, 증액 및 신규사업이 저조한 점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내년 29개 사업 중 예산 규모 상위 3개 사업(전통시장 시

설현대화사업 89억5900만원,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지원 20억,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강 의원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다경쟁을 개선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도 주문했다.

손영준 제주자치도 일자리경제총상국장은 "올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경영지원센터를 만들었고, 내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제주 드론규제샌드박스 사업 성공리 완료

해안 모니터링·쓰레기 탐지 활용 소나무 재선충 판독에도 큰 효과

전국 최초로 진행된 제주 드론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주관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초로 드론규제샌드박스 지역에 선정돼 지난 5월부터 실증에 돌입했다.

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태양광 드론으로 7시간 이상 연속 채광, 제주 대부분의 해안을 탐색했고, 이를 통해 실시간 매핑 및 해양쓰레기 인공 지능 기반 자동탐지에 성공했다.

이어 고정익 드론으로는 집중관리

지역(애월항·용머리해안·수마포구)에서 100회 이상 비행, 고해상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했다. 또 영어교육도시와 올레길 14, 14-1코스에서는 주간 100회 이상, 야간 20회 이상 비행에 나서 드론스테이션 설치와 함께 영업출시

기능도 실증을 완료했다. 이 밖에도 월동작물·재선충 탐지에 나서 90% 이상의 자동 판독률을 달성했다.

제주도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테스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에 참가해 이번 사업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제주도,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제주도는 오는 27일까지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기관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제주지역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생태계와 결합된 신사업 모델 또는 기존 사업연계 확산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민간 법인사업자,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가능하며, 사업비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 25%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자부담 비율은 최소 50% 이상이다.

사업 선정은 내년 1월 7일 진행되는 선정평가회에서 발표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신청은 제주도 저탄소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담당부서(064-710-2534)로 문의하면 된다. 송은범기자

제8회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 대회 무료 관람 안내

■ 일시: 2019.12.7(토) 정오 12시~
■ 장소: 이도초등학교 실내체육관

■ 경연내용
도내 청소년 풍물 경연 대회(사물놀이 및 모듬북 등)

■ 관람료: 무료

■ 이벤트
관람객을 대상으로 풍물 관련 퀴즈를 통한 문화상품권 증정

우리 것의 귀함을 지키려는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문화 경연을 가지려 합니다. 올해로 여덟 번째 개최되는 이번 경연 대회는 비록 경연 대회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순위경쟁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찾아 나서려는 의지와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제주특별자치도연맹 총장 김재필

□ 주최: (사)한국청소년제주특별자치도연맹
□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의: (사)한국청소년제주특별자치도연맹(064-721-8342)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대원 모집

산사나이 오희준은 히말라야 8,000m 10좌를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했으며, 남 북극점까지 횡단하면서 세계 산악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설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전정신을 남기고 간 오희준님은 지금도 히말라야의 품에서 아직도 도전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9년 12월 15일(일) 08:00
■ 장소: 아구장앞 시계탑 집결, 서귀포시: 08시 토평동 오희준 추모공원 집결

• 인원: 선착순 40명
• 비용: 10,000원(교통비및 산악보험) 동행 351-1060-7931-53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등산교실
• 준비물: 식수 및 산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 산행코스: 평화로 - 북돌아진오름 - 괴오름 - 평화로

산악인 오희준 그는 누구인가?
1970년 8월 16일생 1989년 2월 서귀포등학교 졸업
1989년 3월 제주대학교 입학, 제대 산악부 기동
1992년 8월 20일 네발 히말라야 초호우(8,201m)등정
2000년 7월 30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등정
2000년 10월 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시샤브롬(8,031m)등정
2001년 4월 29일 네발 히말라야 로제(8,516m)등정
2001년 7월 2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K2(8,611m)등정
2002년 5월 4일 네발 히말라야 안나푸르네(8,091m)등정
2004년 1월 12일 남극권2정 44일간 세계최단기복 성공
2005년 5월 1일 54일간 도보로 북극점 도달
2006년 5월 1일 네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등정
2006년 7월 8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시브롬 1봉(8,068m)등정
2006년 7월 31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시브롬 2봉(8,035m)등정
2006년 9월 20일 네발 히말라야 마나슬루(8,156m)등정
2007년 배령해협 횡단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면 코리안루트 개척중 캠프4지점인 7,700m 지점에서 '산사나이 하늘을 오르다'
2008년 9월 30일 체육공정 영호상수훈(체육공정 영호상 제51호)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이사장 현 학 봉

• 연락처: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사무국장(010-9838-6552)

로컬푸드 생산자조직에 참여할 농가 모집

제주에서 생산! 제주에서 소비!

한살림제주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유통을 위한 로컬푸드 매장사업에 생산자로 함께할 농가를 모집합니다.

2020년 4월 로컬푸드 매장 개장을 목표로 제주도내 로컬푸드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소규모 영농으로도 일정 수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농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상시
■ 모집대상: 제주도 농업인 누구나(중소농, 고품농, 청년농, 귀농 등)
■ 참여조건: 제주도에 거주하며 제주도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
■ 문의: 한살림제주: 064-747-5988, 070-4940-3964 ※ 전화주시면 교육이수 등 참여방법을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로컬푸드 운동과 함께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로컬푸드 운동에 관심 있는 분은 한살림제주로 문의 바랍니다.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본 광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로컬푸드 기반 사회적모임 발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